



## 딸의 결혼과 그림책

▨ 현은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림책과 함께했던 유년기의 즐거운 시간을 두고두고 생각해 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모든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달에 제 딸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선물로 무엇을 쟁겨줄까 고민하다가 이기 때 셋던 옥아 일기 와 용일이를 읊어학-녹음테이프와 그림책 「Coco can't wait」(고미 타로 글, 그림)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학교 연구실에서 찾아보았더니 언젠가 학생에게 빌려주었는지 않고, 국내외 인터넷 서점에도 새 책이 없다 하여서 할 수 없이 중고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자는 체 말수정이를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출산하였습니다. 부부가 유학생들을 하느라 이기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가 아기였을 때 고미 타로가 쓴 그림 「Coco can't wait」를 체일 좋아했습니다. 이 책은 한 자리에서도 몇 번씩 읽어 달라고 졸라대어 결국은 하드 커버 표지도 뜯어지고 본문 중에도 너털나털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그림책을 못 잊어 하니 그 책을 버린 것이 두고 두고 후회가 됩니다.

고미 타로는 주로 1~3세 영어들이 즐겨 읽는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Coco can't wait」는 유아가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캐릭터를 잘 묘사하고 있고 구성도 단단하여 영어 그림책의 모범이 되는 책이지요.

주인공 코코는 엄마와 언덕 위 보라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고 코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른 마을 언덕 위의 오렌지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는 할머니께 풋을 선사하려고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 사파를 따던 할머니는 코코가 생각나 사파 바구니를 들고 코코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언데칼집계도 도중에 길이 엉갈려서 할머니 댁에 도착한 코코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가 코코네 집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코코 엄마로부터 코코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 할머니는 백시를 타고, 코코는 트럭을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또 길이 엉갈립니다. 마음이 급해진 코코는 이번엔 외발-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갑니다. 드디어 길에서 마주친들은 나를 둬 기뻐하며 다음부터는 길 중간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할머니가 들고 온 사파를 먹으면서요.

글과 그림도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책이지만 코코와 할머니의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두 사람이 계속 같이 허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조조해하다가 드디어 둘이 만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말할 수 없이 큰 민족감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수없이 읽어서 다음 장면과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이 장면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기들은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청탁을 제공하는 책도 즐깁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한 둘째 아이는 동물이 나오는 정보 그림책을 특별하게 좋아했던 걸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어떻게 잠을 잘까요?」(아브우 치 마시유끼 글, 그림) 「달님 안녕」(히야시 아카코 글, 그림)과 같은 책들은 번역 출판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까요?」는 “나 랍죽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농글게 말고 잠을 잔태요”, “박죽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산데요”와 같이 묻고 대답하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 두 박자 그림책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이들은 이 책을 읽거나 사랑스러웠던지요.

또한, 다 성장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설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소위 우리가 ‘애들 책’이라 고 여기는 쉬운 책들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책을 읽고 때로는 어른에 웃지 않게 섬세하게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레드먼드 브릭스의 「마람이 불 때에는 길이도 길고 전쟁을 주제로 하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방진시대의 핵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실주의 그림책이지요. 등장인물로는 차임부터 끌까지 평범하고 신랑한 부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 은 핵전쟁이 발발하자 라디오에 구를 기울이고 청부가 시키는 혜전쟁 대비 매뉴얼대로 하나씩 따

르다가 결국 파혹의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일종의 풍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대국의 핵 경쟁, 혁전쟁의 위협, 정부의 무능, 소시민의 순박함이 그려진 책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책을 읽어준 것도 있었는데, 언젠가 아이들이 그 책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정 슬픈 책이었라고 말하던군요. 이렇듯 어린 유아에게도 생의 희노애락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바로 그림책이 가진 힘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아이들과 어렸을 때 읽은 그림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너희들… 그림책 기억나니?”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깨울 때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먼저 그림책 제목이나 내용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마침 전 아들과 함께 명동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서기 좀 보세요. ‘작은 집’ 같아요.”하기에 거리기는 곳을 보니,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이 있고 그 위에 명동 파출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요즘 방영되는 TV 드라마 ‘각시탈’에 등장하는 종로 파출소와 외양이 같은 일본식 건물인데 좌우에 높은 벽이 있어서 일부러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물이었습니다. (명동 파출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일제 시대에 처음 지어졌고 2010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리모델링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은 집 이야기는 영국 작가 버지니아 리 버튼이 쓰고 그런 그림책으로서 그림책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책입니다. 스토리는 어느 젊은 부부가 아름답고 한적한 전원에 작은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집에서 아이들이 이 테아나고 아이들은 아름다운 집 주변을 뛰어들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집 주변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길이 도로가 되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전철과 대중교통 기관인 사람들을 태워 나르게 됩니다. 도로망의 확장과 함께 작은 집 주변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저 멀리 반짝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집 가까이 다가오고 작은 집 옆에도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얼마 있다가 그 건물들을 험문고 빌딩들이 세워지자 작은 집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도 떠나가 작은 집은 빙집이 되고, 이제 낡고 허름해진 작은 집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지은 사람의 후손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그 집이 조부모의 사진 속에 있었던 착은 집인 것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빌딩 사이에서 들어내어 예전과 같은 신원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제 아들이 명동 파출소를 보았을 때 ‘작은 집 이야기’, 그림책을 연상하고 그것을 지와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 속에 그 이야기가 얹지게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그의 산악 고백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아름답다거나 그립다거나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때문에 아니라 연상 작용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교토에서 훌륭한 교토의 설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깨끗이 찍으려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를 그 아름다움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눈송이를 연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설경을 보면서 연상 작용을 합니다. 교토의 눈을 보면서 나는 내 고향 윤양의 설화산 등성이에 내리는 눈송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독대에 소복이 쌓인 눈과 초기지붕의 고드름 사이로 하얀 마당과 담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테에는 ‘연상 작용에 덧붙여 시물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 뿐 아니라 시물과 동물과 식물도 인격화되어 득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레厄작은 집 이야기를 읽는 어린 독자들은 ‘작은 집’에 감정이 입하여 같이 행복해 하고 쏠쏠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동 파출소를 보면서 ‘작은 집’을 연상해하였을 때 그 파출소는 더 이상 차기은 벽돌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집’과 명동 파출소 건물이 겹쳐졌을 때 유년기의 기억은 살아나고 그 건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삶의 풍성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그물망 속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와 함께 있었던 그림책과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누었던 많은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보았던 그림책도 좋고 새롭게 발견한 그림책도 좋을 것입니다. 혹시 삶의 분주함으로 그림책을 잊어주고 살피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으면 자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점에서 그림책을 고르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리고 그 책을 차기 아이에게 읽어 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의 무릎, 책은, 책 아래주던 소리, 눈빛, 서로의 웃음 소리, 자기 손으로 책장을 넘길 때의 쭉감도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 그 모든 것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엄마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온기는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에게로 전해져 그도 역시 창조세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장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동철 교수(현장자 역할)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문화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